

歸國報告(通堂)

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 
차세대 인문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 
귀국보고

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2012년 9월 3일

츠도 아유미  
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 
차세대 인문사회학 개발 센터  
2012년도 여름 개인파견:PD

**연구 주제**

학벌 형성으로 보는 식민지 의료위생인사 상황

**파견지**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

**파견 기간**

2012년 8월 6일 출발 8월 31일 귀국 체재기간 26일

**주요 연구성과**

**(1)연구계획**

한반도 유일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생의 졸업 후 동향조사를 중심으로, 한반도의 의료계에서 「학벌(學閥)」이 가졌던 의의 및 기능을 고찰할 것이다. 그와 더불어 경성제국대학과의 비교를 위해 내지(內地)의 제국대학 의학부 및 의과대학(의학전문학교) 등과 같은 의학교 졸업생들의 조선 진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.

이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①도립의원(=지방공립의원)의 인사이동 상황, ②경성제대에서 의학박사학위 취득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.

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, 『조선총독부관보』·『조선총독부급 소속관서직원록』을 이용하여 기초정보를 DB화하고 그 이동 실태를 밝힌다.

②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, 경성제국대학의 사실상의 후신인 서울대학교 소장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조사하고, 논문구성 및 청구자의 정보를 수집한다.

**(2) 연구성과**

①1910년부터 1942년까지 33년 간의 도립의원(대한제국기에 설치된 자혜의원을 전신으로 한다. 1925년부터 칙령 제86호로 공포된 조선도립의원관제(朝鮮道立醫院官制)에 의해 도립의원이 되었다)에 대해 원장·의관 클래스부터 촉탁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이동 상황을 데이터화하였다.

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통치기 거의 전 기간에 걸친 공립의원인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, 또 지방의 공립의료기관의 확충(출장소나 분원의 의원 승격, 의원 신설에 의한 병원 수 증가 및 인원배치)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.

②서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성제대 의학부의 박사논문 총계 271 권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.

경성제대는 한반도 유일의 대학=학위수여기관이었기 때문에, 박사논문에 관한 정보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고찰하고자 할 때 하나의 실마리로 이용할 수 있다.

처음에는 모든 자료를 전자복사할 예정이었지만, 2012년 7월 도서관규정 변경으로 자료복사는 불허되었기 때문에, 사진촬영은 최소한으로 하고(촬영 데이터 소지도 불가), 각각의 논문에 대해 하나하나 메모를 작성했다.

### (3) 향후 연구 전망

상기 작업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운영 실태를 해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, 지방 수준에서의 조선총독부 위생행정의 실시 상황을 밝히기 위해 기초적이고 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.

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「제국 일본」이 어떻게 위생행정을 실시했는가라는 식민지통치정책 문제와 함께, 제국 일본의 판도 확대(식민지 획득)이 내지의 의학교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문제, 즉 의학교육사와 식민지연구사의 문제들이 시야에 들어와 새로운 연구가 기대된다.

앞으로는 조선뿐만 아니라 내지 의학교의 졸업생 동향도 시야에 넣어 연구를 진척시키고자 하며, 우선은 2012년 12월에 근현대동북아시아지역사연구회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할 예정이다.